

“위로 받은 그림으로 옷 만들었죠”

패션디자이너 나미정 전, 7월 30일까지 노의웅 미술관
노의웅 화백 작품 모티브... 11월 아트콜라보 상품 출시



나미정 디자이너가 노의웅 작가의 '구름천사'를 모티브로 제작한 원피스.

패션디자이너 나미정(38·메타피스코리아 디자인 디렉터)씨는 전시를 준비하며 소중한 만남들에 대해 즐겁게 생각했다. 바다부터 시작한 미국 생활에서 힘이 되어준 이들, 언제나 든든한 응원군이었던 남편과 가족, 미국에서 갑작스레 귀국해 막막했을 때 함께 일하며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에 대해. 무엇보다 서양화가 노의웅 화백의 작품으로 작업을 하게 된 '인연'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노의웅미술관(광주시 남구 수촌안길 7)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이런 인연' (7월30일까지)은 그런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전시장에는 노 화백의 작품과 그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의상이 함께 걸려 있어 흥미롭다. 미국 LA에서 8년간 패션디자이너와 컨설팅 회

사에서 근무하던 나씨는 미국 코로나 19 상황이 겹잡을 수 없었던 지난해 8월 준비도 없이 귀국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처럼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였다. 뉴욕에서 패션 전시회를 열었던 그는 광주에서 오랜만에 전시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차에 지도교수인 박순천 조선대 교수의 소개로 노 화백을 만나게 됐다. "작가님의 '구름천사' 시리즈 중 아름다운 꽃을 한아름 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제 어릴 적 모습이 바로 떠올랐어요. 구름이 나를 따라오는지, 내가 구름을 따라가는지 궁금해하며 걸던 어린시절의 저를 만난 거죠. 예전에는 화려한 작품보다는 중후한 느낌의 작품을 좋아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화려한 색채와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작품이 늘 위안이 됐고, 에너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작가님 그림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해보자 싶었죠."

나씨는 수많은 작품 중 의상으로 만들 그림을 고른 후 리서치 과정을 통해 그림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옷감을 선택했다. 이어 원단에 맞는 디자인과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고 의상을 제작했다.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의 새틴을 활용한 원피스는 심플한 디자인과 화려한 패턴이 어우러져 경쾌한 느낌을 준다. 또 폴리 린넨으로 작업한 상의는 자유분방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전시된 작품들은 '전시용'이 아닌, 실생활에서 바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라 의상 제작을 많이 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데, 이번 전시를 출발점으로 노 화백과의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다양한 작품으로 의상을 제작하고 모델이 직접 옷을 입고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 영상 작품도 제작해 볼 생각이다. 또 11월 중에는 '행복한스인협동조합'과 함께 노 화백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아트 콜라보 제품도 내놓는다. 전시장에는 건축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기

존 작업스타일의 작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와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이 대표적으로 그녀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노 화백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작품의 변형에 신경쓰지 말고 자유롭게 작업하라고 했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나씨의 삶은 늘 도전적이었다. 조선대 조형디자인학과를 거쳐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VISIT IN NEW YORK' 등 다양한 국내 내셔널브랜드 상품기획 MD와 디자인실장으로 일하며 일과 학업(조선대 박사과정)을 병행하던 지난 2012년 돌이 막 지난 아이, 남편과 함께 무작정 미국으로 떠났다. 당시 자라, H&M 등 한국에 SPA 브랜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브랜드들이 자리를 잃어간던 시점이었는데 패션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빠르게 바뀌고 변화가는 시장 상황을 현장에서 보고 싶었다. 한국에서의 경력을 뒤로 하고 실밥 뜯는 일부터 다시 시작한 그는 현지 여성복 'Edgemine' 브랜드 매니저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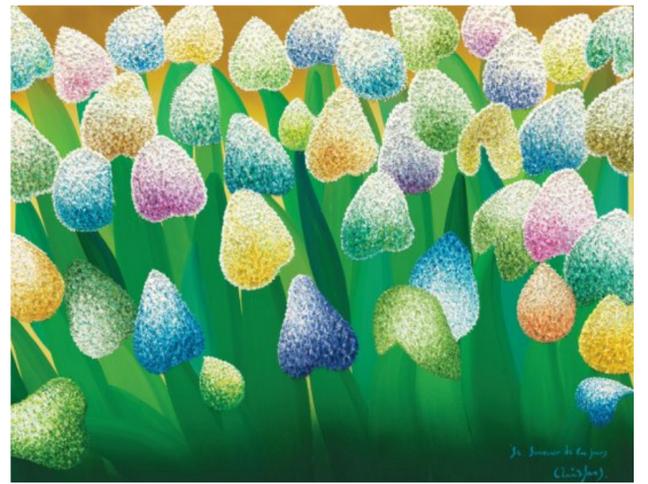


나미정 패션디자이너

귀국 후 참여한 광주시 동구 공공미술프로젝트 '별별별'에서는 박옥수 고택의 오래된 건축 도면을 활용한 조명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고 (주)유니버설트렌드센터 최고 디자인책임자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트숍 상품을 기획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기도 했다. 또 홈&패션 디자인컨설팅 '스튜디오 공일'을 창업해 바쁘게 뛰고 있다.

"전시를 오픈하고 나니 늘 제 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늘 지켜봐주시고 노화백과의 인연도 만들어 주신 박순천 교수님께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또 어떤 인연이 이어져 제 작업과 삶이 더 풍성해질지 기대가 많아요."

월·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파꽃의... 추억여행'

'파꽃의... 추억여행'

최향 작가 11일~18일 서울아산병원갤러리

화폭에 가득 담긴 건 다양한 색깔의 '파꽃'이다. 독특한 기법으로 유화 물감을 짙어 발라 완성한 꽃 한송이 한 송이는 푸른 줄기와 어우러져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낸다.

최향 작가는 '파꽃 작가'로 불린다. 오래 전 군산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 별판에서 우연히 만난 '파꽃'에 반한 그녀는 몇 송이를 뽑아들고 와 그리기 시작했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평생의 작업 주제로 삼고 있다.

최 작가가 10년만에 서울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아산병원갤러리 동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 '파꽃의... 추억여행' 전이다.

지난해 9월 진행된 공모에 선정된 최 작가는 조금은 신중할 마음으로 신작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010년 진화랑, 2011년 고도갤러리 초대전을 끝으로 서울 전시를 접었던 최 작가에게는 이번 전시가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설레이는 나들이기도하다. 그는 이번 전시가 또 한번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다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트레이드마크인 파꽃 작품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맥문동 그림 등

모두 30여점을 전시한다. 50호를 위주로 10호부터 100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그의 파꽃 그림은 무엇보다 편안하게 다가가 사람을 차분하게 해준다. 미묘하고 미세한 색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현해내는 화면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선사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형성은 보는 재미를 더한다.

최 작가가 파꽃에 마음을 빼앗긴 건 어딘지 미숙해 보이지만 화사한 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세상에 이로운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쓰임새'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에게 소박한 위로를 전하는 병원에서의 전시의 의미가 있다.

최 작가는 "작가 입장에서 자신의 그림을 보고 누군가 위안을 얻어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처럼 감사할 일도 없다"며 "다양한 파꽃 그림을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최 작가는 서울, 독일, 베를린, 파리 등에서 30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광주에 나는 가리' 주하주 콘서트

1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 노래패 '친구' 출신이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인 노래운동가 주하주(사진)의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가 19일 오후 7시 광주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주씨는 18세에 음악을 시작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오월의 진실을 노래로 알리던 노래패 '친구'에서 활동했다. 최근 발매한 앨범 '남광주에 나는 가리'에는 그가 직접 작곡한 5곡이 수록됐고 이날 공연에서는 미발표창작곡과 애창곡 등을 들려준다.

첫 곡 '남광주에 나는 가리'로 시작해 삶의 이상향을 그린 '6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망으로 가자', 대금 연주자 권춘수의 글에 곡을 붙인 '해와 달' 등을 들려준다. 이외에도 '부용산', '키사스키사스키 사스', '빼앗긴 아버지 누이를 그리며',



'이 땅의 봄 오거든' 등도 무대에 오른다. 광주 민예총 사무처장 이현미가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에는 음반 제작을 도운 편곡자이자 기타리스트

인 음악감독 박성연을 비롯해 키보드·아코디언 장재란, 베이스 이시원, 드럼 신민성, 해금 최성원, 피리 윤현명 등이 힘을 보탠다.

광주 장애인 밴드 '해와 달'의 보컬 허승과 콘서트의 공동 기획연출을 맡은 민중가수 류의남도 게스트로 함께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2만원이며 선착순 50명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10-4618-737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도전·열정의 무대 '광주학생연극제'

고등학교 4개 팀 참여 17~20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제32회 광주학생연극제'가 17일부터 20일까지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사)한국연극협회와 광주시가 주최하며 (사)광주연극협회와 유·스퀘어문화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연극제에는 광주 소재 고등학교 4개 팀이 참여해 4일에 걸쳐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17일 문정여고의 '장기지랑'을 시작으로 장덕고 '라이어' (18일), 광주제일고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19일), 동산여고 '고등어' (20일)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연극제에서 우승한 팀은 오는 8월27일부터 충남 예산에서 펼쳐지는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광주대표팀으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31회 광주학생연극제에서는 문정여고의 '짬뽕'이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무료관람. 문의 062-523-729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31회 광주학생연극제 최우수작품상 문정여고 '짬뽕'.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